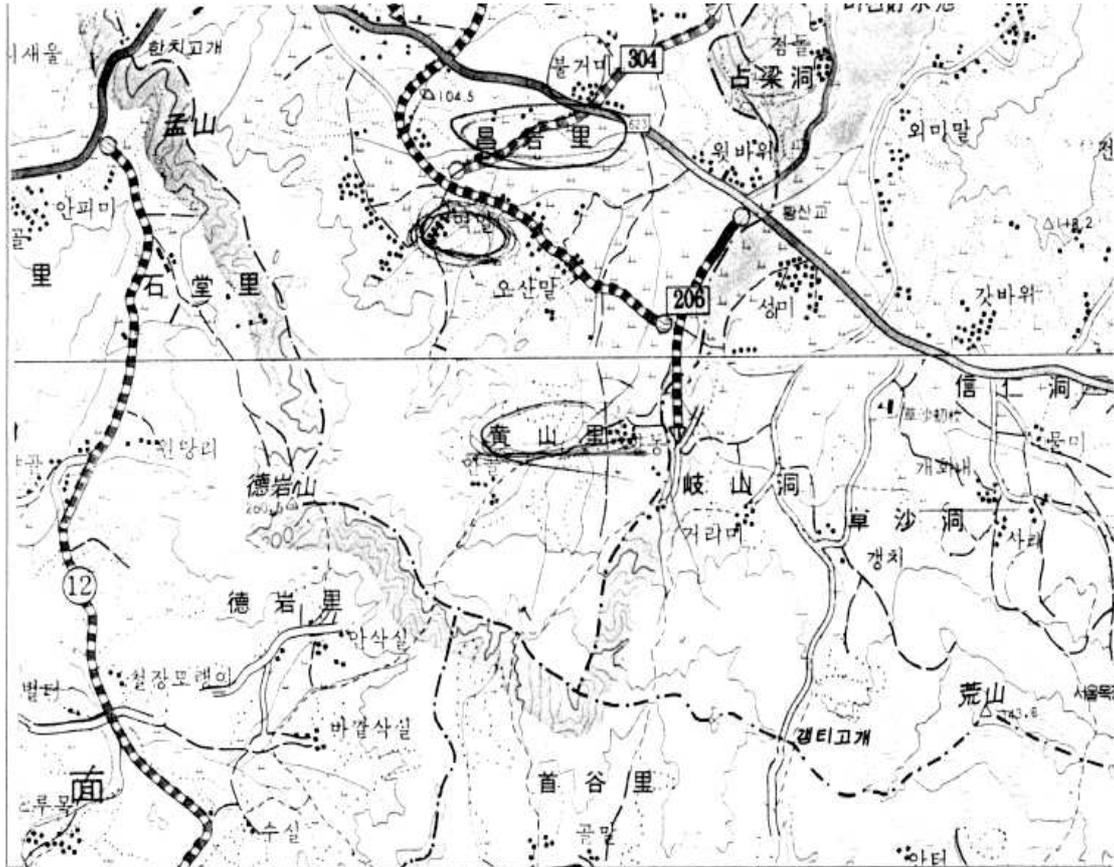


* 마을사 *

황산리·黃山里

황산리는 신창면의 한 마을이며 황등과 오산말로 나뉘어져 있으며, 황등은 오산말에 비해 상당히 큰 마을이며, 가구수도 거의 두 배가 된다. 총 호구수는 102호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씨와 최씨가 많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본래 신창군 대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황동, 외황동, 오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황등과 오산의 이름을 따서 황산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편입되었다.

<황산리 위치도>



⊗ 황등, 오산말 마을(황산리)

황산1리는 황등과 안골마을로 구분되며, 황등은 황산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며, 들이 기름지고 오곡이 풍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며, 안골 마을은 황등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 되었다.

황산2리는 오산말(오사미)라 하고 황등 북쪽에 있는 마을로 가마귀 모양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하여 유래 되었다.

<조사당시 황산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황등 마을은 위도 36-44-50, 경도 126-57-10인 지역에 위치해 있고, 신창면의 남쪽 끝에 위치한 마을로 면소재지에서 7.5km 정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오산말 마을은 황등에서 동쪽으로 약 1km 된 지역으로 206번 도로의 종점이다. 또한 면소재지에서는 남동쪽으로 6.5km 되는 지점이다.

2) 현황

황등 마을은 남자 101명, 여자 86명으로 총 187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로는 63호가 있는데 89%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11%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오산말 마을은 인구는 남자 53명, 여자 69명으로 총 122명이 살고 있다. 총 39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36가구는 농업에 종사하며 3가구만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황등 마을	187명	101명	86명
오산말 마을	122명	53명	69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서비스업
황등마을	100%	89%	11%

오산말 마을	100%	92%	8%
--------	------	-----	----

황등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이 41ha, 밭 27ha로 논이 많은 편이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앰프를 구비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오산말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30ha, 밭 19ha로 논이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농기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등이 있으며, 마을회관 1개소가 앰프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황등마을	68ha	41ha	27ha
오산말 마을	49ha	30ha	19ha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황등마을	1개소	1개소	-
오산말마을	1개소	1개소	-

황등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씨 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박씨 10%, 김씨 8%, 기타 성씨가 58%로 조사 되었고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40~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산말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최씨가 36%로 가장 많고, 김씨 13%, 이씨 5%로 조사 되었고 기타 성씨는 46%로 나타나며 연령 분포도를 보면 50~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최씨	박씨	기타성씨
황등마을	63호	5호	15호	-	6호	37호
오산말마을	39호	5호	2호	14호	-	18호

- 최고령자

황등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 중술씨로 97세이시며, 오산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최 기숙씨로 75세이시다.

3) 자연경관

황등마을은 주위가 온통 산인 마을이며, 가옥은 산밑에 몇채가 모여 있으며 남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산 밑 골짜기에 논들이 드문드문 보이기도 한다.

오산말 마을은 황등에 비해 작은 마을이고, 산의 밑 부분이기 때문에 평지로 되어 있다. 마을 윗쪽으로 논들이 펼쳐져 있고 그 바로 밑에 가옥들이 모여 있다

4) 마을변천과정

황등마을과 오산말 마을은 본래 신창군 대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황동, 외황동, 오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황동과 오산의 이름을 따서 황산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황등 마을은 형성시기는 대략 서기 1400년경 약 600년전 정도로 추정되는데 예전에는 이 마을에 노씨가 많았으나 현재는 연안 이씨가 많고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도 고루 분포되어 있다.

오산말 마을은 처음 원거인은 도씨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어 확인할 길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해주 최씨와 경주 김씨가 거의 같은 시기에 마을에 들어와 5대째 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마을 형성시기는 적어도 서기 1850년경 약 150년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6) 지 명

十 황등 마을의 지명

- 황등(홍등) : 황산리에서 가장 큰 마을.
- 황산리 절터 : 황등 마을에 연대 미상의 절터가 있음.
- 보각산 : 산 허리 부분에 돌산이 있음.
- 바깥황등이 : 황등 바깥쪽에 있는 마을.
- 안골 (안황등, 내곡) : 황등 안쪽에 있는 마을.
- 열녀 정문 : 홍등에 있는 열녀 양녀 봉춘의 정문

十 오산말 마을의 지명

- 오산말(오살미) : 홍등 북쪽에 있는 마을. 가마귀 모양으로 되었다 함.

7) 전 설

8) 전통놀이 및 집단적 행사

황등 마을은 대동계라 하여 초상이나 잔치등 마을에 관련된 일들을 위해 조직되어 있다 한다. 황산리에서는 초상이 났을 경우 빨래를 금기시켰고, 머리도 못감게 하였다. 지금은 미신이라 하여 행해지고 있지 않다.

오산말 마을은 변영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타지로 나간 젊은이들이 명절 때 찾아오면 모여서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유허제라 하여 정월 14일 전 생기복덕한 사람이 제를 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약 10년전부터 행해지지 않고 있다. 품앗이 또한 예전에 있었으나 서로 바쁘고 기계들도 신형이 나와서 없어지게 되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十 봉춘(奉春: 이조)

이조시대의 양가출신열녀(良家出身烈女)로 신창현점인(新昌縣店人)의 처이었다. 병자호란(丙子胡亂)에 남편은 적군(敵軍)에게 사로 잡히고 적군이 겁탈(劫奪)하려고 하므로 죽기로써 거절(拒絶)하다가 피살(被殺)되었다. 이조조에 신창현 대동면 잉동리에 정여(旌閭)를 세웠는데 현재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에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신창현>

十 이익영

애국지사 이익영 선생은 서기 1899년 5월 15일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에서 태어나셨다. 이순신 장군의 13대 자손이며, 4남중 3남으로 황산리에서 한학과 신학문을 하셨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곧고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젊었을 때에도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다. 3.1운동에 참가했으며,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다. 신흥무관학교를 나오고 중앙 낙양군과 학교를 졸업 한 후 간도의 청산리 싸움에서 김좌진, 이청천 장군들과 같이 활약하시다가 해방 후 국내 지도 참모장을 지내고 제주도 병사주 사령관으로 계시다가 6. 25동란 때 실종 되셨다. 나라에서 그분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태어난 곳에 단비를 세웠다.

10) 종교현황

황등 마을은 기독교로서는 황산교회가 있고 신도수는 53명이며 수신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폐쇄 되었다.

오산말 마을에는 종교단체는 없다.

11) 공장현황

황산리에는 공장이 없다.

12) 마을의 특성

황등 마을은 기미년 만세운동때 천안에서 유관순의 봉화불이 황산에 도착해 사흘간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이라 하며 만세 운동은 주낙빈씨 외 4분이 있고 독립운동가들이 나온 마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도회지로 많이 떠났다고 했다. 그래도 이웃들끼리 사이가 좋아 살기좋은 마을이다.

오산말 마을은 황등 마을에 비하면 작은 마을이며, 외지에서 들어와 양계장이나 대지 목장, 애견을 키우기 위해 들어와 살고 있는 가구수가 많으며, 외지에 나가 있는 젊은 이들이 번영회를 통해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는 아직도 서로 돕고 위하는 마을이다.